마차살 수정 전 아카이빙
2026.04.03. 수정회차 통합본

<마법명가 차남으로 살아남는 법>

수정 전 회차 아카이빙입니다.

문제 시 삭제합니다.

안내

푸른 글씨는 수정 후와 동일한 부분

녹색 글씨는 추가된 부분

붉은 글씨는 변경 전 부분

검은 글씨는 삭제된 부분

푸른 글씨와 녹색 글씨는 내용 흐름 이해를

위한 일부만 작성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작품을 열람해 주세요.

오탈자 발견 시 우편함으로 제보바랍니다.

목차

1. 396화
2. 414화
3. 415화
4. 479화
5. 480화
6. 517화
7. 518화
8. 550화
9. 710화
10. 711화
11. 748화

목차를 누르면 해당하는
수정 전 아카이빙으로 이동됩니다.

목차로 돌아오기 버튼 →

마법명가 차남으로 살아남는 법 (396)_ 수정 전

6 Ludwigstr. ~ 적어놓은 것과 다르지 않으니까.

물론 뭐 어쨌든 알아들을 수는 있고

또 작성자가 노인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 "저하께서도 답을 알고 계신 듯합니다." "……."

영국인이겠냐?

저 두 선택지 중에 뭐가 정답 같은가. ~ 느리고 빠르군.

굳이, 싶기도 하고.

나는 속으로 중얼거리고는 미소 지었다. ~ 이 사람에게는 그럴 수가 없었다.

분명 레오의 서열이 한 단계 더 높기야 하지만 아무튼 그렇다.

애초에 레오는 이딴 주문 ~ 맞장구쳐야 할지 살짝 고민해야 했다.

에마누엘의 라비린스에서 읽은 정보와 루카스 에버렛으로서 얻은 정보의 교집합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제해야만 했으므로.

"그리고 보석과 성유물은~" ~ "~나가서 사건을 해결해요."

"예…. 어디 사설 탐정이라도 된 것 같네요. 저는 에마누엘 저하께서 그리 부탁하시지 않아도 이번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교황청이 하달한 임무를 ~ 하나만 해라, 좀.

문장 첫 단어나 고유명사에만 ~ 이런 식이라면 쉽지 않겠지.

나는 편지를 쭉 읽어내려가며 ~ "~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헬렌 벡슬러입니다."
(이후 벡슬러는 전부 웩슬러로 변경됨.)

"좋습니다.~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인은 못다 한 인사를 마저 할지 내 요구에 따라야 할지 고민하다 입을 열었다.

"아, 예. 주인님 방에는 책장이 세 개 있는데…." ~ 사용

인을 시켜 책을 가져오게 했다.

사용인이 가져온 책은 아까 하인이 말한 대로 백과사전이었다. 입이 따로 놀고 있지 않다.

나는 테두리 색이 약간 변한 사전을 넘겨 보며 말했다. ~

"~믿는 게 아니고 진짭니다." "……."

돌에 진짜 효능이…? 뭔? 하지만

나는 의문을 굳이 ~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유물에도 어떤 영적인 기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 말에 의장의 눈이 총명해졌다. ~ "왜죠?"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수많은 계약을 이 펜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제 영혼이 녹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에…… 예?" ~ "'알려져'? 누구에게 말입니까?"

"우리 오컬트 연구자들에게 말입니다."

의장은 제 말이 터무니없는 것처럼 들릴까 걱정하는지, 바로 말을 이었다.

"오컬트는 마법학의 근본이자 미래입니다. 모두들 오컬트를 너무 무속적인 것으로 여기지요. 마법학계는, 특히 마법과학에서는 유물에 특정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유물을 도굴당하고 도난당할까 두려운 것이겠지요. 하지만 오컬트는 그야말로 마법의 본질에 가까운 학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잘 듣고 있던 ~ “~고유의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만하면 됐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까 받았던 편지를 바라봤다. ~ 나는 트리어 대성당으로 복귀할 수 없었다.

그 대신, 에마누엘 비텔스바흐의 집에 초대됐다.

이번 달 초에는 들어가고 싶어 ~ “~마리아의 헤르미티시 게젤샤프트를 망치려 하거나.”

나는 그를 바라봤다.

내가 입을 열지 않아도 ~ “좀 더 자세히 말해 보세요.”

"도난 당한 것은 성십자가와 성정입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부터 사건에 착수했는데, 저는 교황청에 범인이 있었으리라 추측하는 중입니다."

"워…… 그거 번발이 굉장할 것 같은데. ~" ~ "~연결지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첫째, 스페인, 바티칸, 이탈리아를 차례로 이동했다는 점. 둘째, 성유물이 고유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특정 성유물, 그것도 아르마 크리스티 두 개를 콕 집어 탈취하는 행태. 때문에 그 아르마 크리스티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교황청에 있으리라 추측했습니다."

내 말에 에마누엘이 소파 등받이에 팔을 걸치고 몸을 뒤로 푹 기댔다. ~ 그러고는 입을 열었다.



마법명가 차남으로 살아남는 법 (414)_ 수정 전

"나……." ~ 가볍게 들어 보이며 웃었다.

그 동작이 산뜻하기보다는 어디서 교황군으로 오래 살아본 인간처럼 절도있었지만 어쨌든 눈앞의 학생은 그런 제스처를 했다. 누군가 나르케를 갖다 버리고 그 자리에 웬 생판 모르는 놈을 데려다 놓은 것만 같은 생각에-아니, 이게 진실일지도 몰랐다!-온몸의 피가 차게 식는 것을 느끼며 주위를 둘러봤다. 하지만 나르케는 온데간데없었고, 분명, 이건, 이건….

나는 봄날 대낮에 앞이 캄캄해지는 걸 느끼며 소리쳤다.
~ "~마침 신력의 힘을 빌릴 수 있으니 된 것 아니겠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 방식에 윤리적인 결격 사유가 없고 목적을 이루는 데에 문제가 없다면 뭔

들 어떻겠나? 그러나 생각해 본 적없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는 것에 놀랐을 뿐이다. 게다가 눈앞의 구인류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단지 그의 얼굴 근육이 꼭 나르케처럼 움직일 뿐, 그 외의 공통점은 무엇도 없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손을 댄 모델에 각자의 유전자와 마력을 씌워 태어나는 신인류와 달리 여느 구인류와 크게 다르지 않게, 그러니까, 다른 구인류들처럼 독특하게 생겼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동시에 얼굴이 인상에 깊게 남지 않는 평범한 구인류 유럽인 중 하나였다.

내 직업병은 그의 배역을 분석하고 있었다. ~ "~ 아까 들은 '남학생들'이 우리에게 있어 어떤 의미지?"

"…우리…가 남학생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단어 선택 구인류답다."

"맞는 말이야.~"~ 바라보다 나지막이 말했다.

"수사를 방해하지. 우린 그들에게 경계받고 있어. 왜 하필 '외국인 남학생이 둘이나 있는가',가 그들의 심기를 거스른 일이겠지."

유학 온 것이라면 그나마 경계가 덜해질지도 모르지만 우린 그런 변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왜 유학 왔다는 변명을 하지 않기로 했는지는 쉽게 떠올릴 수 있지만 한번 짚어 보자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아까의 식당과는 차원이 다른 위기 상황에서 내가 빈 대학에 유학 왔다고 말해 보자. 의구심을 가진 누군가는 빈 대학을 털어 볼 것이고 나처럼 생긴 독일인이 어느 학과에도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즉시 신원 미상의 2인조는 경찰에 고발될 것이다. 오스트리아 전역의 경찰에게 제국에 '빈 대학 유학생을 참칭하는 첩자가 있다'는 사실이 공유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앞으로 이처럼

간단하게 추론해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기로 한다.

추가로, 독일에서 ~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아까 그 구인류는 우리를 Student라고 불렀다.

영어에서 Student가 ~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성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더욱 반감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고 둘 다 학생이면 문제가 해결되냐, 그것도 그렇지 않다. 아까처럼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상황에 붙잡히기라도 하면 보호자가 누구냐는 말을 들을 테고 우리가 어떤 대답이나 행동을 내놓든 앞서 '유학 왔다는 변명을 하지 않기로'한 결정은 금세 무색해지게 된다.

나는 턱을 쓸다 물었다. ~ 눈앞의 나르케도 따라 웃었다.

좋은 선택이다. ~ 아니라면 어쩌려고?

사실 정신조작마법을 섞어서 우리와 대화하는 사람에게 우리 말이 꼭 오스트리아 사람의 것처럼 들리게끔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남겨 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우리가 외국인으로 있다 중요한 순간 책잡혀서 쫓기게 되었을 때 비로소 '신력으로 오스트리아인이 되는' 방식을 이용한다면 그들에게는 우리가 신력을 쓸 수 있다는 데이터가 없으므로 그들이 동원하는 대책의 수와 종류는 극복 가능한 선에 그친다. 하지만 처음부터 비장의 무기를 이곳저곳에 펑펑 써 보이며 우리가 공공연히 남의 뇌를 쥐어뜯고 다닌다는 사실을 광고하면 그

들에게 승리의 기회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그렇게 오스트리아인으로 있어서 들키지 않는다면 이득이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유학의 경우처럼 말이다.

나르케는 금세 손가락을 튕겼다. ~ "~ 그렇다고 우리가 서로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도 없는 노릇이지."

"총리가 돌연사하지만 않았어도…."

그렇지. ~ 수사가 난감해지고 있다.

머리를 붙잡고 혼잣말하자 나르케가 웃었다.

"하하, 그랬으면~" ~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그 상태로 첩보 활동을 왜 못해."

첩보의 역사에~ 드러나는 것이 이것이다.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거나 덜 의심하는 집단의 구성원을 이용해 첩보에 활용하는 것은 역사가 유구한 방식이다.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례는 2차대전에서 빛을 발했는데, ~ "~ 대해서도 썩 관대하지 않아." "……."

재미있는 질문이다. ~ 여전하다.

나는 이 낯선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며 턱을 쓸었다.

"…우범률…. 이 아니고… 로맨스에 미쳐서?"

"하하하!" ~ "~ 다른 무엇보다 평범해 보여."

"~이건 아까 우리가 평범해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야.~"

"~우리는 지극히 ~ 위험 인자가 되는 거야."

"……."

나는 미소 지어 ~ 한 발 다가온다.

"하지만 ~ 관대할까?"

"…우리가."

나는 ~ 열었다.

그리고 ~ 바라봤다.

나는 대답을 기다리는 나르케에게 내가 평생 이해하지 못한 것을 나지막이 말했다.

"그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행복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 "~오스트리아에 들른 거야." "……."

"이보다 좋은 선택지는 없어. 어쩌면 우리 둘 중 누군가 사춘기 청소년 구인류를 연기해서 경계심을 누그러뜨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거기서 끝이야. 이미 마이너스인 이미지를 0으로 끌어올릴 방법이 되지는 못하지."

나르케는 ~ 미소 지었다.

그의 통찰과 예지가 지금 그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고 있으리라.

그리고 동시에, ~ 더 겪을 만큼 여유롭지는 않았다.

나르케의 문제해결 방식은 수많은 가설을 사고 안에서만 고려한 뒤 현실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나와는 퍽 다른 방식이었다.

그는 ~ 스타일이었다.

'…그나마 통찰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그렇게 ~ 생각을 고친다.

아니, 어쩌면 통찰 때문에 ~ 빼앗고 있는지도 몰랐다.

"……."

면발치를~날아간다.

그게 사실이라면, ~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뭐가 어쨌든 이건 여행이 아니라 수백만을 죽일 독약을 빼앗기 위한 작전이니, 사고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실험을 해 볼 만큼 긴장을 놓을 수는 없다.

그나저나.

나는 아직도 옆에서 보조를 맞춰 걷는 완벽한 타인에게 적응하지 못했다.

제국에서 환각으로 모습까지 ~ “응?”

나는 이 생면부지의 타인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에 어색함을 느끼지 않으려 노력하며, 최대한 고개를 숙여 그의 갈색 눈을 마주하며 친근히 대답했다.

“너 내 목 보면서~” ~ 멈춰세우는 모습이 보였다.

앞에 가는 ~ 경찰이 말한다.

“국경 옆이라~” ~ 얼굴로 주위를 둘러봤다.

맞다고 대답했는데도 수색이 뒤따랐다.

대충 얼버무리고 ~ 없겠다.

경찰은 시민의 생김새나 옷차림으로 자국민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있었고, 설령 그게 진짜 오스트리아인일지라도 자의적인 판단에서 걸리는 데가 있으면 일단 수색하고 보는 중이었다. 그는 금세 내 쪽으로 와서 내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

“오스트리아인?” ~ 입을 맞추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개인적으로 나는, 시대를 불문하고,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져 있는 연인들을 볼 때 대개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가끔은 피곤했지만 그것을 연기하는 것쯤은 어렵지 않았다.

가끔은 사회적으로 ~ 아득해져 침을 삼킨다.

그게 내 평생을 이루고 있었으니.

경찰은 젊은이들을 ~ 깔린 입구를 벗어났다.

우리는 표를 사 대합실로 돌아왔다.

주위를 둘러보니 신문이 온통 검은색이다. ~ [빈 경찰 "총리 암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철저히 조사할 것"]

나는 속으로 그가 ~ 의식이 깜빡이는 것 같다.

“…….”

그 뒤로~기다렸다.

대합실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시간은 완전히 가시방석이었다.

말을 하면 외국인인 티가 나고 ~ 이렇게 기차역에서 떠드는 소리를 엿듣는 수밖에 없었다.

이럴 때면 운 좋게도 누군가 단상 같은 곳에 올라가 쩌렁쩌렁 제 생각을 늘어놓는-연설할-때도 있었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호응해 주기도 했다.

“테오.” ~ 기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과로사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신인류는 아

무리 굴려도 과로사하기는 어렵고 신인류 나이로 50대면 팔팔한 나이다.

지금으로서는 빈에 가자마자 ~ 시선이 어땠던가.

굳이 나서서 무어라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럴 때마다 주위의 공기와 흘끗대는 시선에 희미한 적개심이나 경계심이 머물었다.

다시 말하지만 식당에서 ~ 들어 보이며 미소 지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내 주의는 대합실에 앉은 '오스트리아인들'에게 있었다.

아까 경찰 앞에서 ~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저 왜인지 모르게 속이 좋지 않았다.

어쩌면 나는 이유를 ~ 받아 줄 여유가 없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노인의 말을 자르고 물었다.

“막스 뮐러의 <독일인의 사랑> 읽어보셨나요?”

21세기에서, 언젠가, 누군가와 ~ 쾌활하게 맞장구쳤다.

“물론 읽었지! 그 작가 아버지가 시인으로 유명하지 않은가. 나는…….”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죠?” ~ “그래요. 우리도 그 얘기 중이었습니다.~”

“~좋은 의견 나눌 수 있어 기뻤습니다.” 추가.

그러고는 우리와 좀 더 대화하려는 나이 든 구인류로부

터 빠른 걸음으로 멀어졌다.

복병이다. ~ “잠깐 기다려 봐.”

마법명가 차남으로 살아남는 법 (415)_ 수정 전

우리는 더듬대는 말로 부르는 사랑이란 것의 올바른 이름을 찾는 것, 그것이 오직 우리의 문제였다.

그대의 오빠라도 좋고, 그대의 아버지라도-아니, 그대의 무엇이라도 되고 싶다.

바로 이 '무엇'의 이름을 찾아내야만 했다. 세계는 이름 없는 것을 그 무엇도 인정하지 않으므로.

"둘이 왜 결혼해야 하는데?" ~ 나르케의 얼굴을 보자마자 사납게 튀어나온 말은 그것이었다.

경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내 입은 알아서 말을 뱉어냈다.

그런 나와 달리 나르케는 차분히 내 손을 그러쥐고 나를 불렀다.

“테오.”

“그게 최선이야? <독일인의 사랑>을 읽고 주인공과 마리아가 살아남아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최선일 수 있는 건가?”

그러나 나르케에게 그 말을 토해내자마자, ~ 내 독서법과 가치관은 에코의 방식에 가까웠지만, 그렇지만,

나는 이 말을 하는 순간 아까의 구인류 노인이 <독일인의 사랑>의 텍스트를

-“결혼을 바라지 않고서는 여자를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까?” ~ “~나도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어.”

나는 세상이 느릿해지는 것을 느끼며 나르케의 목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저 한시라도 빨리 이 급격하고 ~ "~그들은 서로의 영혼을 어루만질 줄 아는 사람들이야. 그게 다야.~"

"~두 영혼은 공명하는 경지에 이르렀지만 그건 구인류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개념일지도 몰라. 그들의 성은…."

그의 말이 한 마디씩 놓일 때마다 암담함으로 ~ "하지만 너는 오인하지 않아, 루카스. 그러니 이름을 찾아 봐."

나는 가만히 그를 바라봤다.

나의 시선은 그의 눈동자로 향해 있다. ~ 그러면서도 그것은 내게 깊은 정념을 불러 일으켰다.

그때 구인류 몇이 통로 반대편에서 들어오며 ~ [외무장관, 최근 들어 동양식 자양 강장 마법약학에 관심 가져]

"……."

나와 눈이 마주치자 나르케가 ~ 범인으로 몰고 보는 꼴 잘 보았다.

툭툭-

그때 뒤에서 누군가 어깨를 두드려, ~ 다른 승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 보려는 듯했다.

21세기인으로서 조금 당황스럽기는 해도, 19세기에서는 그리 낯선 일이 아니었다.

길게 말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 적어도 총리의 목숨은

건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범행을 저질렀는지 모르게 상황을 꾸미더라도 1순위 용의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내가 진짜 범인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 총리 살해는 그저 실수 였다. 둘째, 그들은…….

그들은 승산이 있다.

자신이 있는 것이다. ~ 우리는 지금부터 그것을 해체해야 했다.

마법명가 차남으로 살아남는 법 (479)_ 수정 전

"안눈치아타 씨 그렇게 안 봤는데." ~ 나는 팔짱을 끼고 지켜보다 넌지시 말했다.

"그냥 다리에 마력 실어서 걷어차면 안 됐던 거야? 주먹으로 부수든지."

"루카. 인간은 도구를 이용해야지." ~ 뭐하냐는 얼굴로 바라보자 그가 고개를 기울였다.

처음부터 걷어차기 좋게 만들 생각으로 연장을 달라고 한 것이거나 중간에 내 말에 혹한 것이 아닐까 한다. 나는 한숨을 한번 쉬고 말했다.

"여기에도 없으면 남은 선택지는 셋이야.~" ~ 호엔촐레른 집에 우편물을 보관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같은 가족이기는 해도 귀족들의 권력 다툼을 생각하면 썩 실현 가능성이 높은 일은 아니다.

나는 문서고의 새로운 방으로 발을 디뎠고, ~ 엘리아스가 말했다.

“너 아직 두 개만 말한 거 알아?”

“알아.” ~ 그때, 뒤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우릉거리는 목소리가 흐른다.

“바벨 이전의 세계를~” ~ 지팡이 삼아 쥐고 있었다.

우리가 그의 몰골에 당황했을 때, 그는 괴상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Penitenziagite…. Vide quando draco venturus est a rodegarla I’anima tua. La mortz est super nos. Prega che vene lo papa santo a liberar nos a molo de todas le peccata! Ah ah, ve piase ista negromanzia de Domini Nostri lesu Christi! Et anco jois m’es dols e plazer m’es dolors… Cave el diabolo. Semper m’aguaita in qualche canto per adentarme le carcagna. Ma Salvatore non est insipiens! Bonum monasterium, et aqui se magna et se priega dominum nostrum. Et el resto valet un figo seco. Et amen. No…?”

당황스러웠다.

머리가 차가워졌다. ~ 끊임없이 저주 같은 주문을 왼다.

노인이 하는 말은 ~ 소위 말해 헛소리였다.

나는 그가 하는 말을 더듬더듬 해석했다. Penitenziagite는 내가 알기로 회개하라는 말이었고, 예수 그리스토와 디아볼로와 아멘 같은 발음으로도 알 수 있었으며, 대강의 라틴어에서 기원한 단어들을 어렴풋이 알아들을 수 있었다. 엘리아스도 배울 만큼 배운 유럽인이니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노인은 대개 각국의 언어를 섞었고 또한 말이 안 되는 문장을 만들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모골이 송연해졌다.

이건 이곳에 오기 전 ~ 이 세계에 있을 리 없었다.

“Penitenziagite…. ~” 번역입니다. 기록자 자체 번역이라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회개하라…. 용이 그대의 영혼을 삼키러 오는 때를 보라. 죽음이 우리 위에 있도다. 거룩한 교황께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죄로부터 해방해 주시기를 기도하라! 하하,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강령술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니 기쁨은 슬픔이고, 쾌락은 고통이다… 악마를 조심하라. 그는 늘 구석에 숨어서 내 발뒤꿈치를 물려고 한다. 하지만 살바토레는 어리석지 않다! 좋은 수도원이며, 여기서 먹고 우리 주님께 기도도 하지. 그 밖의 것은 마른 무화과 한 알만큼의 가치도 없다. 아멘. 그렇지 않은가…?”

- 움베르토 에코, <장미의 이름>

마법명가 차남으로 살아남는 법 (480)_ 수정 전

눈앞이 아득해지고 있었다. ~ "~ 어르신, 이 시대의 모든 언어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는 애써 당황을 누른 채 특유의 느긋함을 유지하며 어깨를 으쓱였다. 엘리아스가 한 발짝 다가서며 비뚜름한 미소를 지었다. 펜타론 가면은 입이 뚫려 있어 표정이 보였다.

"그보다 우리는 국무원에서 왔습니다.~" ~ 엘리아스 마저도 이렇게 말한다.

옳은 말이다.

동시에 나는 머릿속이 끓어오르는 ~ 그가 손을 허공으로 펼쳐 들며 외쳤다.

“하느님이 오늘 이 땅 이 자리에 바벨 이전을 아는 사람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예언을 거두어 가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Penitenziagite! Penitenziagite! Vide quando draco venturus est a rodegarla l’anima tua! La mortz est super nos! Prega che vene lo papa santo a liberar nos a molo de todas le peccata!”

엘리아스는 미친 사람을 다 보겠다는 얼굴로 입을 벌렸다. ~ 노인은 옳은 말을 했다. 신탁은 옳다.

나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고 지금 당장에라도 끝까지 문장을 외울 수 있었다.

공작은 에코의 저술을 알 뿐 아니라 나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 어둠을 뚫고 열차의 헤드라이트-생플롱오리엔트철도의-가달려든다.

B와같이십자형의 구조를 취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가역적인 변환이다. 비히스톤단백질에속하는여러가지전사억제인자는이처럼붙어DNA를A형으로하거나언어가국가의풍습에미치는 영향은 이처럼 자명한데, 인문주의자들은 중세를 경멸했다. 초인 개념은 역사적으로 오용되어 왔는데그렇다해도자유주의자들과는 함께할 수 있는 개념이아니었을 것이다.우리는 19세기 유럽 지성사를 진공요동에 의존하고, 휘어진 시공간의무작위적이고확률적인요동은인접공간들의줄다리기를통해일어난다.1955년양자역학와일반상대성이론을결합한휠러는‘독일 철학(deutsche Philosophie)’이란 다름 아닌 정신적으로 수준높은동일성을창출하고자하는인위적인합집산이아니라면우주를주관하는본성은실존한다.

저렇게 두들겨대면지옥의문지기라도정신이없을것이다. ~ 아마도, 분명했다.

마법명가 차남으로 살아남는 법 (517)_ 수정 전

"먼저 기본적인 사항은 전해 들었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합시다." ~ 나는 작전 개시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는지 가늠해 보고 말했다.

"플레로마가 '독일 제국과 유럽 전역에 소식을 알릴 생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정면에 앉은 이들보다 살짝 위의 허공만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때 어떤 식으로 알릴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어떤 수법을 쓸 것인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에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 계획'이라니,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충분합니다." ~ "~ 신문이 전 세계에 깔려 있으니 말입니다."

이 사실만 알아도 문제는 없고 이건 누구나 알려주지 않아도 다들 자라면서 알 수밖에 없었다. 정치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라도 말이다. 그러나 좀 더 실정에 맞게 생각해 보자면 이렇다.

독일에서 발행되는 제국신문의 최신본은 ~ "~ 독일에 제공할 기술력이 있고 그렇게 한다.~"

"~ 둘째는 말할 것도 없으니 패스합니다.~"

"~그러나 기술이 있는지 확실치 않으니~" ~ 장교들이 그것도 그렇다는 표정으로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지만 여기서 끝이면 안 된다.

거기서 그칠 때가 아니었으므로 ~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신문사 인근에 신력 마법사를 배치합니다.~"

"~그러고 남은 신력 마법사는 아낌 없이 도심 곳곳에 배치해야 할 것이며 광장이 최고의 선택이나 감시에 발각될 위험이 있으므로 종탑과 같이 높은 건물에 몸을 숨기게 하고 신력을 아래로 내려 보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또한 신력 마법사 개개인이 가진 나름의 약점을 약간이나마 상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장교들의 각 지위를 침범하지 ~ 사고방식을 확인하는 장으로 받아들여지는 듯했다.

그리고 그 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생각은 없었다. 그들은 일생에 몇 번 마주하지 않을 왕실 구성원과 그에 등용된 자들이 얼마만큼의 역량을 가졌으며 앞으로 협력해도 좋은지 아닌지 가늠하기 위해 우리를 판단할 필요

가 있었다. 무엇보다 그들이 작전 돌입 후에 최선을 다해 임하기 위해 갖가지 정보가 필요하다면, 그들이 얻어야 하는 선에서는 그래도 좋았다. 어차피 공직자라면 매 순간이 평가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신력 마법사가 많지 않습니다." ~ 나는 그가 더 말을 잇지 않어 다시 앞을 보며 말했다.

"아트로포스 테러 위험과 시발점이 될 곳을 예측해을 말씀드렸으니,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들이 동네 주민들처럼 6시가 되어서야 느적느적 모이는 자들의 집합이 아님을 충분히 알고, 또 그들 계획의 원대함을 통해서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30분 전부터 그들은 집결할 것입니다."

근거는 간단히 여전히 ~ 내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해야 했다.

또 내게 힘이 닿고 시간이 허락되는 한 그 세계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나는,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태도를 언제나 갈고닦아야 한다.

골라 알아 온 기술은 세 가지, ~ “지금부터 플레로마의 세계로 이동하면, 엔트로피의 변화를 감지할 겁니다.”

마법명가 차남으로 살아남는 법 (518)_ 수정 전

"아스트랄계라." ~ 서류 박스를 안아 들어 먼저 건물로 들어갔다.

그는 연기를 뱉고서 대답했다.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시청에 담배를 피우며 들어가도 실내 ~ 다른 교구장의 집무실로 가는 레버는 여러 개의 물건에 뭉쳐 있다.

그러나 깃펜으로 교구장 주교 집무실로 넘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기도 하지만, 바이에른의 8개 교구, 그 중 아이히슈테트와 뮌헨-프라이징, 그리고 이곳 밤베르크를 제외하면 6개 교구인데 10개가 있다는 점에서 조금 천천히 시간을 들여 교구와 깃펜의 위치를 매치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두 번은 운이 좋았던 것이니. 내게 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굳이 그걸 신중치 못하게 쓸 필요는 없다.

먼저 나는 다시 문서고로 이동해, 그곳에 연결된 다른 레버가 있는지 찾아 보러 가기로 했다.

그로부터 30분쯤 지났을 때, 우리는 공교롭게도 주택가에서 마주쳤다. ~ 그러자 레오가 나를 보며 눈살을 찌푸리다, 입을 벌렸다.



마법명가 차남으로 살아남는 법 (550)_ 수정 전

학생회장은 뭐 그런 말을 비장하게 하나 싶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 또는 내가 인간으로서의 마음가짐을 잃는 것이 단순히 그가 지켜보기에 재미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짓은 다른 고려 없이 그저 재미다.

루카스 아스카니엔이 전국 곳곳으로 싸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이 프로이센의 의무 비슷한 일이라 해도 말이다. ~ "프랑스산 공산품 및 사치품 불매 운동이 민간에서 번지고 있다. 그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마법명가 차남으로 살아남는 법 (710)_ 수정 전

베팅한다. ~ 하나는 기계번역이 '듣는 자의 앎'에 맞추어 껍데기를 쓴다는 것.

이 문장의 핵심은 듣는 자의 앎이다.

또 다른 하나는 개구리들이 ~ 지식을 알게 되었다는 것.

아니라고 해 줘. 한숨만 난다…. 너무 많은 균열로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가? 이미 칸케르가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내게 끝의 실루엣을 보였는데, 여기서 더 균열이 세상에 알려진다는 건 정말로 이판사판이 코앞이라는 말이 아닌가? 균열을 아는 건 나와 몇몇으로 족하다.

이 세계의 끝이 코앞이라고 믿을 근거가 아직 빈약하므

로 후자를 고려하되 전자가 좀 더 합리적이라고 가정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오류에 빠질 수 있다. ~ 역이 언제나 성립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솔직해지자면 머릿속에서 직관으로 처리된 영역에 관해서는 그냥 그러면 그런 거지 하고 넘기고 싶다.

하나 더 솔직해지자면 신경망 학습보다는 ~ 대화가 오갈 때 마음이 놓일까. 당연히 후자다.

그럼 내 뜻대로 물어봐도 된다는 말이지. 나는 웃으며 입을 열었다.

「혹시 제 전서구 받으셨나요?」 ~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 중심으로 등장할까요? 저는 그게 좋습니다.~」

「~책을 덮을 때까지 그가 태어난 첫 장에 머무는 인물로는 이야기를 이끌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항상 궁금했던 것인데, 사진사인 주인공이 만나는 그 모든 다른 인물은 당신일까요?」 ~ 이걸 통해 숨겨진 신부를 찾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

실제 딥러닝 기술에서는 안 된다. 출력 노드에서 은닉층으로 직접 들어갈 수는 없다. 하지만 추정해 볼 수는 있다.

추정하기 위해서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적하는 방법을 써 볼 수 있는데,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 것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역전파다.

비유하자면 역전파는 모습뿐인 사자와 ~ 기울기를 계산하려면 손실을 정의해야 한다. 개념적으로 그렇다.

이때 손실은 진짜 카지미어 신부가 하는 말과 고작 상일 뿐인 이 사자가 내보내는 말이 얼마나 다른가에 해당한다.

나는 잠깐 곰곰히 생각하다 머리를 눌렀다. ~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고 있다.

손실이 있었으면 서로 한 마디씩 할 때마다 좀 동문서답 같다고 생각해야 마땅했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손실된 게 전혀 없다는 말은 ~ 그런 정보나 직관을 보내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카나리아가 했듯이 길을 인도해 주든지, 그런 방법이 막혔다면 어디가 어떻게 막혔는지, 카나리아 상태였던 때와의 공차가 어떤지 있는 힘껏 정보를 전해 보라고.

추론은 그런 단서로 해내는 것이다. ~ 하나, 둘, 나는 침을 삼킨다.

아, 이게 그가 제시한 플롯이다. 그래도 준비할 시간은 줘야지! 나는 곧장 호흡을 고른다. 사자가 말한다.

「우리의 손실은~어딨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보다 신속하게 그를 찾아야 할 때다. 이렇게, 액면 그대로 해석하는 자들은 사자의 말에서 숨겨진 뜻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셋.

숫자가 별안간 의식을 침범한다. 웬 셋?

잠에서 깨었을 때 펼쳐진 ~ 고막까지 쿵쿵 울렸다.

뭐지, 뭐야, 나만 빼고 몰래카메라 하냐?

이 사람들 뭐야. ~ 서 있다는 것이 경악할 지점이다.

야, 인기 좋네. 이따위 부분에서 인기 좋기를 바라지는 않았는데. 황당한 광경에 침만 넘어간다.

시간을 벌어야 한다. ~ 그들의 완드는 그대로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갑자기 이게 뭐냐고…. 말로 하면 안 되나요?"

어디를 보고 말해도 그들은 묵묵부답이다.

야, 이렇게 가만히 있기도 쉽지 않아. 그럼 한번 실험 좀 해볼까?

나는 양 손을 든 채로 ~ 나는 휘파람을 불어 봤다.

한 사람의 완드가 위로 들린다. 나는 과장되게 눈썹을 끌어올리고 어깨를 움츠렸다가 다시 목을 뺐다. 그러고 어둠과 하나가 된 사람들을 둘러보며 속삭였다.

“설명 좀 해 줄 사람?”

마법명가 차남으로 살아남는 법 (711)_ 수정 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 40%면 좀 걸릴 만한데? 왜 이 사람들은 멀쩡하지?

그러자 무언가 차단되는 소리가 들렸다.

웃음이 났다. 뭐야, 너무 노골적인데.

꼭 스위치 내리는 소리를 녹음해서 ~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은데 몸은 하나다.

내가 어디에 있는 걸까. 나를 빼내러 올 사람이 있을까, 내가 나갈 수 있을까.

호흡이 조금씩 빨라진다. ~ 영문 모를 말과, 주문과 함께 익숙한 음성이 들린다.

“2에 2에 1.”

2에 2에 1.

Scene 2의 Cut 2, 첫 촬영. ~ “네 아버지가 찾는 곳으로 가라.”

마법명가 차남으로 살아남는 법 (748)_ 수정 전

하느님을 믿지 않지만 하느님을 믿을 수 있을까? ~ 믿지 않는다고 말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를 인격체가 이해한 로고스나 인격체의 산물로서 신뢰하고, 신의 어머니인 우리 인류의 인격까지 신뢰한다.

그러나 우리가 굳이 대지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듯, ~ 오로지 신체를 유지 하는 데에 정신을 내맡기는 것뿐이다.

뭐, 생각에 잠기는 것도 좋은 일이다.

다만 지금 이 시기에는 아니다. ~ 가위 없는 상태로 자르는 법은 모른다.

나무 틈새 사이에 넣고 강하게 밀듯이 당기면 끊기지 않을까 생각은 해 보는데, 그 정도로 머리 자르기가 간절하지는 않고.

그냥, 이대로 좀 참다 보면 세 시간 ~ -에를 들어 파피용 본받기-말라는 뜻이거나.

이런, 후자겠군……. 나는 헛웃음을 치면서 결론을 찾았다.

그래도 양말 클립이 없는 건 ~ 5, 4, 3, 2, 1, 0…….

나는 감긴 눈을 천천히 떴다.

시간이 되었는데도 테이블은 텅 비어 있다. ~ "~ 시골 평지도 아니지요."

"……."

"내 추측으로 여기는 알제리 오레스 산맥에 있는 베레즈마입니다. 맞습니까?"

그 나이 든 인간은 대답이 없다. 대신 그는 문가에 서서 손을 내밀 뿐이다. 나는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친절한 노인은 어서 손을 잡으라는 듯 내 명치께로 손을 낮췄다. 나는 그 하얀 장갑을 낀 손을 가만히 바라보다, 노인의 코앞까지 다가섰다. 그러고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와 싸우고 싶은 게 아니면 직접 여기에 오라고 전하십시오."